

■ 현장과 시각 ■

정부정책, 신뢰부터…



정후식

사회1부부장

수도권 규제 완화와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연일 반대 성명서가 쓰이고 보완 요구가 빛날 치고 있다. 수도권 현장, 지역간 불균형 심화정책에 대한 항의지만 그 밖 비단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절로 깔려 있다.

우선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의 추진 과정을 비교해보자.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2003년 6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한 뒤 이듬해 4월 특별법에 그 거부권 마련했다. 성경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직접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전기관 대상 노조와 국회의 입장도 들었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계획안을 최종 발표했다. 정부 방침이 처음 나온 뒤 2년 만의 일이었다.

5+2 광역경제권은 이와는 꼭 대조적이다. 지난 7월 21일 규현위 1차 보고회에서 기본 구상을 내놓은 직후 전국 순회 보고회를 갖기 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 설명회에는 규현위 실무국장이 참석했다.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도 전에 구체화부터 서둘렀다. 각 시·도에 선도프로젝트를 5건씩 제출하고 요구한 뒤 40여 일만인 9월 10일 권리별 전략을 발표해버렸다. 지역 의견 수렴이나 합의, 동의 절차는 무시됐다. 그야말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였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사업은 대부분 누락되고 기존 사업만 끼워넣기식으로 반영됐다. 권역도 영남은 2개인 반면 호남은 3개 시·도를 한데 묶어놓았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역경제권을 보이콧하기로 한 배경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 위기를 불모 삼아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버렸다.

한나라당이 지난 10일 개최한 시·도지사정책 협의회는 이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툼 없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민심을 거스르는 잇단 정책들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를 잃는 것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정부 스스로 절차적 탄성성부터 확보해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who@kwangju.co.kr

한국인 5명 승선 日 국적 화물선

소말리아 해상서 또 피랍

해적 추정 무장단체에…외교부 대책본부 설치

한국인 5명이 태고 있는 일본 국적 화물선이 15일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외교통상부는 16일 "소말리아 아덴만 내 동쪽 96마일 해상에서 15일 저녁 6시 10분께(한국시간) 일본 선박회사 소유의 파나마 국적 2만4800t 화물선 '챔스타 베너스(Chemstar Venus)'가 납치됐다"면서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해 5명의 한국인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밝혔다.

피랍선박에는 한국인 외에 필리핀인 18명 등 총 23명이 승선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납치단체의 신분이나 피랍자의 안전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말리아 근해는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번한 지역으로, 국제해사국(IBM)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소말리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습사건만 총 63건에 이르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이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36건)에 비해 배반을 각각 설치했다. 정부는 또 이날 정도

외교부와 국방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을 비롯한 관련국과 협조하면서 우리 선원들이 조기에 석방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말리아 근해는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번한 지역으로, 국제해사국(IBM)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소말리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습사건만 총 63건에 이르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이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36건)에 비해 배반을 각각 설치했다. 정부는 또 이날 정도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수백 채의 주택이 불타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날 LA 북쪽 실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마을은 화염에 휩싸였고 자동차와 주택들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곳곳 큰 산불…LA 비상사태

주택 수백여 채 불 타고 주민 2만여명 대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서 15일(현지시간) 대형 산불이 발생, 수백 챗의 주택이 불타고 주민 2만여명이 대피하는 등 급수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산불로 말미암아 수천 아이의 산림이 불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이날 하루 종일 LA 주변 하늘을 뒤덮고 주요 고속도로가 일시 폐쇄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이날 LA 카운티 일원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LA 카운티와 인접한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이날 오후까지 1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고 약 2천여채가 불탔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주민 1만여명이 산불을 피해 긴급히 집을 나왔다.

또 산타바버라 카운티의 부촌인 몬테시토 지역에서 사흘째 계속된 산불은 이날 약 40%가 진화된 가운데 지금까지 주택 112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산불로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서 최소한 20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됐다.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은 연례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가 났다. 지난 해 10월에는 30여곳에서 산불이 나 50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약 2천채의 주택이 파괴됐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친절상담
법원 062-222-8446
경찰 010-3666-8446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 민원사례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생활동	154/418	14억8000만	7억8000만	설기·모집수령
우신동	227/431	67억2000만	47억	지역자치센터
우신동	168/193	10억8000만	5억8000만	노제부동
운일동	146/400	12억9000만	7억8000만	기사·사무실
왕봉동	137/223	6억1000만	3억5000만	상가·사무실
왕봉동	362/983	41억4000만	26억5000만	금동·화원
우동	113/1959	11억1000만	62억2000만	설기
누문동	40/34	4억8000만	2억4000만	수정초등학교

▶ 민원상가

소재지	면적(m²)	감정가	최저가	비고
생활동	57400m²	7억4000만	4억2000만	금호아시아나몰 1층
월동	15.8	7000만	3140만	동부센타로빌딩 2층
월동	41	2억8000만	1억4000만	한국화재보험 1층
우신동	39	4억8000만	1억	클리닉스빌딩 1층
생활동	32	5억1000만	1억8000만	아름드코리아 1층
월동	200	2억3000만	9300만	금동상가 101~102
월동	2	1억	4400만	금호아시아나몰 1층

▶ 민원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문화동	46/57	1억9000만	1억3000만	사무실 주택
정평동	50/101	3억3830만	2억3700만	기사·사무실
유동	50/17	2억8000만	1억8000만	한국화재보험 1층
화정동	341/681	16억8000만	7억5600만	대현고객회원회
신기동	63/119	2억8000만	2억5000만	PC방·원룸 3층

▶ 출박시설(모텔)/월류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생활동	154/299	4억5000만	2억5000만	5층짜리
문화동	134/400	14억4000만	5억1000만	6층짜리
금남동	63/299	5억8000만	3억2000만	7층짜리
월류동	832/828	15억4000만	5억5000만	5층짜리

▶ 동가관련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생활동	154/299	4억5000만	2억5000만	5층짜리
문화동	134/400	14억4000만	5억1000만	6층짜리
금남동	63/299	5억8000만	3억2000만	7층짜리
월류동	832/828	15억4000만	5억5000만	5층짜리

▶ 오피스텔/다세대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문화동	11.8	8000만	4480만	구도트빌 4층
월동	47.4	3억3000만	1억8480만	로진타운파크 2층
월동	13.7	8800만	4820만	동강 1층
월동	8.8	5500만	3850만	수림 7층
월동	9.1	4300만	2400만	제일 13층
문평동	44.9	2억	1억4000만	무등스위트빌리 2층
월동	25.6	1억4000만	8000만	그랜빌 4층

▶ 오피스텔/다세대